전북도민의 소리 정치권 전달할 것

전북도민대동포럼, 발기인대회 · 정책간담회 · 초대 의장 김도영 예원대 교수 선출

전북의 미래발전과 재도약을 위한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전북의 생존구도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결성된 전북도민대동포럼(이하 포럼)이 지난 26일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세미나실에서 발기인대회 및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된 이날 발기인대회에서 포럼은 의장, 부의장, 본부장 등 집행부를 구성하고 정식 출범했다.

초대 의장으로는 처음부터 포럼을 기획하고 결성에 주도적 역할은 한 김도영 예원예술대 교양학부 교수가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또한 포럼은 수석부의장에 최권상 (주)삼경테크 대표이사를, 상임부의장에는 강종화 전라북도 바둑협회 부회장과 차명화 전주비전대 겸임교수를, 부의장에는 김창길 한국자유총연맹 중앙위원과 염봉섭 남원시의원, 강민서 전주대 평생교육원 교수를 임명했다.

김도영 의장은 취임사에서 "낙후된 전북지역 현실과 복잡다단한 현실경제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소시민들의 생활 속 애로와 정책들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담고 대안을 꾸준히 제시하여야 한다"면서 "기존의 정치 · 경제 · 행정 · 문화의 이해관계 틀에서 벗어나 전북의 모든 직능에 걸쳐 열린마음으로 연성력(soft power)과 경성력(hard power)을 집결해 전북의 첨단문화산업 발전과 행복안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정책의 틀을 정치권 및 지방행정과 숙의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설립취지와 목적을 설명했다.

이어 포럼은 전북지역의 각 직능 단체의 리더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어젠다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포럼은 향후 전북 도민들의 생활 속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매 분기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자체 정책연구소를 통해 정책을 마련해 정치권과 지방행정에 제공하는 시민단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윤상기자

남원 죽항동 주민자치위원회, 환경정화활동 펼쳐

남원시 죽항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진택)는 십수정 주변과 요천변 벚꽃 길 일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이번 주에 만개할 요천변 벚꽃을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구경을 위해 많이 모일 것에 대비해 추진된 것으로, 주민자치위원들과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요천변 벚꽃길 구간의 잡초 제거 및 쓰레기를 수거했다.

죽항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차장 주변이나 공한지 등 환경정화활동을 분기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춘향제 기간에는 3개조로 나누어 행사 다음날 새벽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김진택 위원장은 "코로나가 종식되면 자치사랑방 활성화 및 시민 평생교육 정책에 걸맞게 자치사랑방을 더욱 알차게 꾸려 나가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강종화 민주 대선 총괄특보단장, 사무소 개소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 총괄특보단장을 맡았던 강종화 전북체육회 이사가 지난 27일 도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강종화 예비후보는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전주 제7선거구 삼천동에서 도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 · 진안 · 무주 · 장수), 양경숙 국회의원(비례대표)과 조지훈 · 우범기 · 이중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 각종 자생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큰 성황을 이뤘다.

강종화 도의원 예비후보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며 "특히 주차난 해소 등 삼천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바둑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강 예비후보는 오랫동안 전북 체육계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현재 전북체육회 생활체육활성화 특별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또한 지역사랑보장협의체, 자율방범대, 주민자치위에서도 활동하면서 지역봉사에도 앞장서 왔다.

/김윤상 기자

진안 정천면 새마을협, 정성 귀한 후원금 전달

진안군 정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안인재, 이하 협의체)에 귀한 후원금이 전달됐다.

정천면 새마을연합회(새마을지도자 회장 강상화, 부녀회장 이정자)가 2021년 한 해 동안 회원들과 함께 마련한 수익금 50만원을 좋은 일에 쓰고자 협의체에 전달한 것이다.

새마을연합회는 매년 겨울 미역, 다시마, 김 등을 판매하고, 연중으로 재활용 폐의류를 수거?판매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모인 수익금은 매년 면민의 날 등 면에서 치러지는 큰 행사에 후원금 등으로 전달했으나, 최근 2년간 이어진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올 해는 협의체에 후원금을 전달하게 된 것이다.

강상화 회장은 "협의체에서 주민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데, 새마을연합회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며 "주민들의 도움으로 연합회 활동이 추진되고 있는 바, 주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후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인재 위원장은 "다양한 활동으로 기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후원금을 주신 새마을연합회 회원들에게 감사하고, 그 뜻이 퇴색되지 않도록 많은 주민에게 다양한 사업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대 과학영재교육원, 과학영재 입학 · 교육과정 시작

전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원장 송규정)은 지난 26일 비대면으로 입학식을 갖고, 1년 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날 입학식에서는 송규정 원장의 인사와 교육과정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초등심화과정 57명을 비롯해 중등심화과정 94명, 중등사사과정 35명 등 총 186명이 입학했다. 심화과정 학생들은 STEAM교육, SW융합교육, 프로젝트 탐구활동 등 1년간 100시수 이상의 다양한 영재교육을 받고, 사사과정 학생들은 연구중심의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으로 80시수 이상의 교육을 받게 된다.

송규정 원장은 "우리 영재교육원에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수학 · 과학 · 공학 · 인문학 분야 등 매우 다양한 주제로 한 단계 더 높은 배움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과학영재들이 교육을 통해 지역과 국가를 이끌어 나갈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영재교육원은 1998년에 설립,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북대학교 부설기관으로써 25년째 운영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취업 서포터즈 7기 발대식 개최

전주대학교는 최근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 서포터즈 7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 서포터즈는 전주대 학생 및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친화적인 정책과 지원 사업을 브이로그, 카드뉴스, 각종 이벤트 등 온 · 오프라인을 활용해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7기 서포터즈는 서류와 면접을 통해 총 40명을 선발, 올해 12월 말까지 9개월 동안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서포터즈에 참여하게 된 소지윤(역사문화콘텐츠학과 3년) 학생은 "청년고용정책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우리 지역 청년층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상행 센터장은 "단순한 홍보가 아닌 책임과 목적의식을 갖고 자신의 역량을 키우면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프로그램과 다양한 청년고용정책을 적극 홍보해 주길 바란다"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재학생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청년들의 진로 취업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고창군보건소, '국가암검진사업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고창군보건소가 '2021년 전북지역 암관리사업 성과평가'에서 국가암검진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전북지역 암관리사업 성과평가로 도내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 암검진 수검률 및 암 예방 홍보, 우수사례 항목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선정됐다.

고창군은 코로나19 시기에 비대면 전략으로 암검진 수검률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특히 저소득층 건강애 꾸러미를 제작하고 암 검진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암 건강정보 소책자와 홍보용품을 배포하며 호평을 받았다.

지역주민들의 암검진 접근성과 편리성을 위해 보건소뿐아니라, 보건지소, 진료소 등에 대변통을 상시 비치하는 배려도 돋보였다.

이에 더해 각종 보건사업과 연계해 순회 방문을 통한 암 예방교육 강화로 읍 · 면의 의료취약지역까지 암 검진을 확대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미수검자 검진 독려를 위해 수시 문자 발송이나 전화 상담으로 암 검진의 중요성을 알렸다.

고창군 유병수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주민 간 소통이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국가 암 검진은 암을 조기에 진단해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필수 조건이다"며 "군민이 스스로 암 검진을 챙길 수 있는 의식변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무주군, 생활개선무주연합회, 역량강화 · 과제교육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회장 강신정)가 회원 60명을 대상으로 28일 농민의 집 농민마당에서 생활개선 역량강화 및 과제교육을 실시했다.

매년 읍 · 면별로 희망하는 과제를 선정 추진해오던 교육으로 올해는 6개 읍 · 면이 '천연염색 앞치마 만들기'라는 하나의 과제를 선정하고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무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서정분 소장을 강사로 초빙한 가운데 '지역에서 여성지도자들의 역할 및 자세, 그리고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생활지원팀 민선희 팀장은 "긴 역사를 자랑하는 생활개선회가 농촌지역의 봉사 활동, 쓰레기 줍기, 꽃길 가꾸기, 불우 이웃돕기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치면서 단체의 역량을 넓혀가고 있으며 타 농업인 단체에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교육으로 여성농업인의 리더로서 농한기를 이용한 회원들의 코로나 스트레스 해소 및 농촌 생활의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군은 코로나 재 확산이 우려되는 시점으로 회원들의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대 김오환 명예교수, 치대 발전기금 기부

전북대학교 김오환 명예교수(치과대학)가 치대의 지속 발전과 후학양성을 위해 최근 서봉직 학장에게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명예교수는 1대부터 4대까지 치대 학장을 역임하면서 전북대 치대 설립과 기반 마련에 큰 기여를 해 왔다. 또한 치의학 연구소장,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부회장, 미래 임플란트 연구회장 등을 역임했다.

서봉직 학장은 "우리 치과대학 후학들은 김오환 교수님의 열정을 기억하고 있으며, 교수님이 거름을 줬던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보내준 성금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효자2동 새마을부녀회, 환경정비 봉사활동 펼쳐

전주시 효자2동(동장 김혜숙)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수옥)는 28일 봄맞이 관내 공원 환경정비활동을 했다.

이날 새마을부녀회원들은 주민들의 쉼터인 공원 곳곳에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를 줍고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했다.

박수옥 회장은 "깨끗한 우리 동네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해 환경정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름다운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효자2동 새마을부녀회는 지역 환경정비 활동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김윤상 기자

농협 익산시지부, 영농폐기물 수거 '구슬땀'

NH농협 익산시지부(지부장 이상우)와 금마농협(조합장 백낙진), 농가주부모임 익산시연합회(회장 황규선)는 28일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일대를 찾아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고 마을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농협 임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올바른 배출방법을 홍보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상우 지부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를 통해 농촌의 미세먼지를 줄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며 "영농폐기물의 방치 및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